

理論哲學은 무엇인가?

뿌루노 바우흐 著述

安浩相 譯述

여기서 바우흐(Bauch)의 理論哲學을 紹介함은 두가지 意味를 가졌다. 첫째로는 바우흐의 理論哲學에서 獨逸의 正統哲學 곧 라입니츠, 칸트, 피히테, 로체들의 哲學의 本精神을 엿볼 수 잇는 때문이요, 둘째로는 獨逸의 近代哲學運動의 가장 重要하고 決定的 地位를 가진 때문이다. 그의 哲學體系를 아려면 그의 重要的 著書들을 다 읽어보야 될 것은 더 말할 必要가 없다. 그러나 그러케 함에는 긴 歲月과 많은 努力을 虛費해야 됨은 必然한 일이다. 近代哲學의 指導者들의 哲學體系를 어찌하면 간단한 論文으로서 一般學界에 알리울가? 함이 獨逸 哲學界 一般의 考慮꺼리가 되엿었다. 이러한 動機로써 千九百三十一年에 「近代의 獨逸의 體系的 哲學」(Deutsche Systematische Philosophi der Gegenwart)이라는 冊을 公開하였다. 이 冊에서 近代哲學의 指導者인 바우흐, 들이쉬, 하르트만, 웨닉스팔트, 슈발츠, 폴켈트, 이 여섯사람의 哲學體系를 紹介하였다.

여기서 바우흐의 理論哲學의 紹介가 그 哲學의 全體的 紹介가 아니다. 일반학계에서 말하기를 바우흐는 근대 철학계에서 이론 철학가로서 伯仲을 다 토는 자라고 한다. 그것은 헛 말이 아니다. 그 「진리와 가치와 현실」 또 「그 이념」이란 두 저서를 본다면 그를 큰 이론 철학가라고 할 것이다. 이 두 저서는 근대의 논리 인식론계에서 위대한 가치와 劃時期的 업적을 나타내었다. 그는 단순히 큰 이론 철학자만 아니라 또한 큰 실천 철학자다. 그가 자기의 박사 논문인 「행복과 인격」이란 저서와 또 근대 문화란 저서에서 「윤리학」을 공개했을 적에 그는 근대의 위대한 실천 철학자라고 일흠이 들날엿었다. 그래서 「행복과 인격」이란 박사 논문은 즉시에 일본어로 역까지 되었다. 그는 윤리학을 한 학(Wissenschaft)을 만들기 때문에 인식론을 중요시하며 또 이론이 피테의 말가 갖치 「불행한 이론」(Graue Theorie)이 되지 말기 때문

에 윤리학을 도한 중요시한다. 그의 철학체계의 전체 안에서는 이론 철학과 실천 철학이 의존한 부분들이요, 보충하는 계기들이다. 그의 철학체계를 아려면 그의 인식론 뿐 아니라 그의 윤리학을 또한 알아야 될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그의 실천 철학은 뒷날에 다시 소개하려고하니 여기에서는 다만 그 이론 철학만을 잠깐 소개코저한다. 그의 심원한 철학의 진리를 아직 철학이란 나라의 문턱에 겨우 드러선 나로서는 이 간단한 지상에서 완전히 소개하지 못함을 스스로 부끄러워 할뿐이다.

一. 이론 철학인 것에 대한 세가지 근본 의의

만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늘 말하는 이론(Theorie)이란 글자를 일편주의 할 적에는 그것은 여러 가지 정의와 의의를 가졌다. 그러나 이론이란 글자의 모든 의의의 색조들을 다 살펴 봄은 철학적 견지에서 아모 의의가 없음으로써 바우흐는 여기서 오직 이론이란 글자의 세 가지 의의들만을 고찰하였다.

(1) 우리의 언어는 그 자체가 벌써 이론적(Theoretisch)과 실천적(Praktisch)을 구별하고 있다. 물론 보통적 언어 사용에선 양자의 구별을 철학적 의미로서 파악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양자의 구별성을 명백히 함은 또한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실천과 이론을 전혀 반대로 여기는 경향이 많다. 그 실천적이란 것은 언제든지 행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능동적인 것이요, 그 이론적이란 것은 앎(知)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한갓 수동적인 것에 더 지나지 못한다. 실천은 산 것이요, 이론은 죽은 것이다. 다시 말하면 행은 자아활동의 결과요, 앎은

이라고하자. 그러나 吸取와 學習이 또한 單純이 受動的만이 아니라 그 根本에 드러가서는 또한 能動的으로 된 것이다. 學習함에 그 學習者의 能動性이 얼마나 重要한가는 어린 아해들에게서 늘 經驗하는 것이 아닌가?! 萬一 어린아이가 글字를 알기 爲해서 읽고 쓰기를 배호자면 거기 對해서 많은 精神的 活動이 必要하다. 어린 아해가 그 글字들의 잘 배호와 못 배호 또는 速히 배호와 더디게 배호가 그 아해의 精神의 聰明 如何에 만이 아니라 精神의 活動如何에 또 한매인 것이다.

우리의 胃腸은 外界로부터 食物을 吸取한다. 그러나 이와 가치 單純한 吸取만으로서 그 食物이 우리의 肉體에 조금도 利롭지 않다. 그 뿐 아니라 도리어 우리의 肉體를 病되게하며 害되게 할 뿐이다. 우리의 胃腸은 食物을 受動的으로 吸取만 하는 것이 아니라 吸取한 그 食物을 能動的 活動으로서 消

化시켜야 된다. 그래야 食物은 피로 변해서 우리의 肉體를 生長 發達시킬 수 있다. 人間 心理 現象에서나 또 自然 事象 變化에서 受動과 能動은 언제든지 다 가치 함께 作用하고 있다. 이로 말미암아 單純이 受動的 뿐이라는 「理論」이 또한 能動性을 包含하고 있는 것을 疑心할 수 없다. 哲學的으로 考察한다면 理論과 實踐은 둘이면서 하나요, 또 하나이면서 둘이다. 理論과 實踐을 分離시킴은 論理的으로나 事實的으로나 絶對로 不可能한 것이다. 理論으로부터 實踐을 分離시키거나 或은 實踐으로부터 理論을 分離시킴은 兩者 自體의 否定이다.

(3) 앎의 속에는 受動的인 것과 또 能動的인 것이 다 가치 들어있다. 그러나 앎이 한갓 知識의 吸取며 學習으로서는 自己의 能動性이 아직은 自我 活動의 獨特한 能動性이 아니라 도리혀 吸取的 能動性과 吸取的 活動性에 더 넘지 못한다. 앎과 앎 사이에는 두 種類의 區別이 있다. 이 두 종류의 앎은 우리는 다음과 같은 事實로서 證明할 수 있다.

어린 아해가 三角形의 內角의 和는 二直角이라는 말을 듣고 아랏다 하자. 그러면 이 아린 아해가 三角形의 內角에 對한 앎과 또 數學者가 三角形의 內角에 對한 앎이 다 같은 種類의 앎인가? 勿論 數學者나 그 어린 아해가 三角形의 內角의 和는 二直角 밖에 못 된다는 것은 다 갖히 아랏다. 그러나 그것에 對한 그 두 者의 앎이 말은 비록 앎이란 한 글자로서 表示하지만 그 內容은 전혀 별다른 두 종류의 앎들이다. 어린 아해의 앎은 다못 드러난 것 곳 오직 吸取한 것이지만 數學者의 앎은 그 三角形의 本質을 洞察한 結果에 三角形의 內角의 和는 二直角이란 것을 안 것이다. 다시 말하면 數學者는 첫재로 一直線 上에 있는 角度는 오직 百八十度라는 것 둘째로는 三角形의 外角은 兩對 內角들의 和와 같다는 것 셋째로는 外角으로부터 兩對 內角의 共通된 直線에 平行線을 그어서 이 兩對 內角의 和가 그 外角에 같다는 것을 證明대여 아는 것이다.

어린 아해의 앎은 아무 理由와 原理를 모르고 오즉 感受性의 活動으로서 吸受해 안거시오, 數學者의 앎은 모든 理由와 原理를 찾아내여서 된 앎이다. 그거슨 곳 數學者가 三角形의 內角의 和가 二直角이라고 한 것슨 한 論證된 앎(Ein begruende-tes Wissen)이다. 이 論證된 앎이 홀노 科學的 앎(Wissenschaftliches Wissen)이요, 이 科學的 앎이 곳 科學과 理論이 되는 거시다.

科學(Wissenschaft)과 理論(Theorie) 兩者의 內容의 關係는 無論이어나와 그들의 言語的 關係 좃아 아주 明白히 認識지 못한 자들이 많다. 兩者가 語形은 비록 다르지만 語義는 다—갓다. 그럼으로 우리는 物理學에서 原子를

研究하는 學을 原子學이라고 數學에서 數를研究하는 學을 函數學이라고 生物學에서 種源의 學을 種源學이라고 哲學에서 認識을 研究하는 學을 認識論이라고 하지 안는가? 科學과 理論 「科學的」과 「理論的」은 한 同義語(Synonym)다. 哲學的 意味에서는 理論이 쓸데 없다는 거슨 곳 科學이 쓸데 없다는 거시다. 理論의 不定은 科學의 否定的 必然性を 끌고 들어간다. 바꾸어 말하면 科學을 肯定함은 理論의 肯定的 必然性を 말하고 있다.

二, 앎과 對象

우리의 모든 앎(認識)은 「어떤 무엇」을 아라 된 앎이다. 만일 어떤 무엇을 아라 된 앎이 아니면 그것은 앎이 아니다. 「앎은 어떤 무엇의 앎이다」 앎은 제 自體의 可能性에 依해서 어떤 무엇을 必然적으로 제의 對象을 삼는다. 내가 안다는 것은 對象을 안다는 것이며 또 나에게 알이 인다는 것이 또한 그 對象이다. 나의 앎이 對象의 앎이 아니면 그것은 앎이 아니라 몰음이다. 앎은 몰음이 아닌 때문에 對象을 前提 잡아야 된다. 對象의 前提 밑에서 비로소 앎의 對象성과 客觀性を 갖게 된다. 그러면 모든 앎에 客觀性を 빌여주는 對象은 어떠한 것인가? 人間 心理의 現象인가? 自然 事物의 現象인가? 이 兩界가 다 哲學的 現識의 對象이오, 또 이 兩界의 認識이 理論哲學의 課題다. 그러나 哲學者가 이 兩界를 對象 삼음은 決코 自然科學者와 또 心理學者가 自己들의 對象을 삼음과 같이는 않다. 그들은 個別的 現象을 그대로 認識코저 하지만 哲學者는 이 個別的 現象의 認識을 다시 한 번 더 認識코저 한다. 다시 말하면 이 個別的 現象의 認識이 될 수 잇을 적에는 이 認識 自體가 벌서 그 어떠한 前提 밑에서 되였을 것이다. 그럼으로 哲學者는 個別的 現象의 認識의 普遍 可能 制約을 차저 내고저 한다. 萬象의 認識의 制約을 認識 함은 萬象의 可能 制約을 認識함인 것으로서 곳 萬象의 眞理의 認識이다. 우리의 생각에는 우리의 對象 認識의 制約과 또 認識 對象의 制約이 별 다른 두 개인 줄 알지만 窮極에 이르러선 그것은 다 갖흔 한낱이다. 對象 認識의 制約이 곳 認識 對象의 制約이오, 또 認識 對象의 制約이 곳 對象 認識의 制約이다. 이 思想이 고대 희랍의 플라토哲學에서 이미 잇었으며 또 近代에 칸트가 비로소 第一 明白히 表言한 바가 아닌가. 칸트는 自己의 「純理性의 批判」에서 말하기를 「對象經驗의 制約들은 곳 經驗 對象들의 制約들이다」(Die Bedingungen der Erfahrung der Gegenstaende sind zugleich die Bedingungen der Gegenstaende der Erfahrung) 마춤내 對象 認識과 또 認識 對象이 同一한 前提와 制約 밑에서 되는 때문에 認識 對象의 可能性은 곳 對象 認識의 可能性을 또한 제것의 可能性을 끌고 든다. 모든 對象 認

識과 認識 對象의 普遍 制約은 그 다른 것이 아니라 오즉 「그 眞理」(Die Wahrheit)다. 眞理의 無窮한 全體 속에는 認識과 對象이 絶對的 依存關係를 갖었다. 혹은 이것을 「헤겔的」으로 表現한다면 無窮한 眞理 속에는 認識과 對象이 한 辨證的 關係를 갖은 두 辨證的 契機들이다.

三, 認識과現實界

理論哲學의 本來의 緊急한 問題는 그 現實界다. 現實에 關係하고 또 모든 理論的 趣味는 그 現實界에 集中되었다. 現實은 우리의 日常生活의 出發點일 뿐 아니라 또 다시 모든 學究的 生活의 出發點까지 된다. 그럼으로 人生의 全生活이 이 現實界로부터 出發함은 이 現實界를 永永出發해 떠남인가? 아니다. 우리가 現實을 出發함(떠남)은 우리가 이 現實을 「떠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現實에 다시 도라 올여는 것이다. 現實로 出發하며 또 現實에 도라옴이 人生의 勞力의 本意요, 또 人生의 生活의 目的이다. 人生은 現實을 잊을 수가 없다. 現實을 잊음은 제 生活과 제 勞力의 價値를 잃어버림이다. 現實을 떠나면서 못 떠나며 또 도라오기 때문에 떠나지 않으면 아니된다. 全 生活의 對象인 이 現實은 또 다시 認識의 對象이다. 認識은 現實의 認識인 때문에 現實로부터 出發한 것이며 또 現實을 目的삼었다는 것이다. 現實界는 모든 認識의 出發點인 同時에 또한 目的 點(Ausgangspunkt und zugleich Zielpunkt)이다.

現實은 出發點이요, 또 目的 點이라고 하였다. 다시 말하면 現實은 첫 點 이요, 끝點이다. 「첫」이요, 「끝」인 이 現實界는 제 自體 속에 벌써 分裂과 矛盾을 包含하고 있다. 一般觀念에 絶對的인 것으로 보이는 이 現實界를 分裂 시키며 또 矛盾되게 하는 그것은 그 무엇인가? 그것은 반드시 이 現實界보 담 더 絶對的인 것이며 또 더 힘잇는 것이 아니면 아니될 것이다. 現實은 矛盾으로 되었는지라 이 矛盾을 되게하며 만든 그것은 現實의 創造者며 現實 의 根本 原理일 것이다. 現實보담 더 힘잇는 現實의 創造 原理는 現實 그것 과 다 가[튼] 것은 아닐 것이다. 만일 그것이 現實과 다 가[튼] 것이라면 그 것은 이 現實을 分裂시킬 수도 없을 것이며 또 現實보담 더 힘잇을 수도 없 을 것이다. 그러면 現實界와 다른 그 「界」는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 니라 그 「非現實界」(Unwirklichkeit)라는 것 뿐일 것이다. 아즉 엄밀한 哲學 的 思索에 훈련이 汲지 못한 생각은 이와 가튼 「非現實界」는 한갓 空想의 結果요, 妄想의 遺物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哲學的 眼光으로 볼 적에는 現實界에 窮極 眞理는 오즉 非現實界며 또 이것으로부터 비로소 現實界가 可能할 수 있으며 또 存在할 수가 있다. 우리 人生이 이 現實界를 唯一無雙 한 最高 것으로 녀임은 그 또한 사람의 本能이다. 그러나 우리는 自然的 本

能을 떠나 勞力的 活動을 始作할 그 때에는 現實界의 不完全과 결點을 알 수가 있다. 吸收的이요, 受動的인 五官(感性)에는 有限한 現實界 뿐이지만 活動的이요, 自發的인 생각(理性)에는 有限한 現實界 뿐이 아니라 이것의 本質이며 眞理인 그 無限한 非現實界까지 自己의 對象이 되는 것이다. 現實界의 根本的 認識은 그 非現實界의 깊은 認識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으며 또 無限한 非現實界의 認識은 有限한 現實界의 認識까지 包含하고 있다.

非現實界는 제 自體가 벌서 現實界가 「아님」으로서 그것은 한 世界가 될 수 없다고 말할 것이다. 勿論 그러하다. 非現實界는 그 現實界 自體는 아니다. 그러타고 非現實界가 現實界보담 客觀性이 없거나 價値가 없는 것은 아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더 한번 넓이하고 깊이 한다면 그 非現實界가 이 現實界보담 더 客觀的이요, 또 더 價値있는 것을 깨다르리라. 사람의 一生에서 그의 意識의 發達과 또 생각의 進歩의 科程을 살펴보라. 그의 意識이 發達되며 그의 생각이 進歩할수록 그는 그 當時와 當處에서 듯고 보 는 그것 以外에 또 다시 듯고 보지 못하는 그것을 要求하며 또 아라내지 안 든가?! 素朴한 意識은 現實界의 固定性和 絶對性을 믿지만 反省하는 그 생각은 現實界의 流動性和 常變性을 認識함은 決코 現實界의 存在와 價値를 輕視하며 損傷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들을 더 깊이 承認하며 더 많이 높여주는 것이다. 만일 現實界가 오직 「이러나」고 「나타나」는 그것 뿐이라면 그거슨 虛虛, 浮浮, 한 것 뿐으로서 그의 存在의 價値와 또 價値의 存在를 가질 수가 없다. 그러나 現實界의 有限한 現象은 모두가 그 非現實界의 無限한 活動에서 뿌리 박었슴으로서 그 有限의 現實이 또한 無限性을 갖고있다. 有限者의 無限性은 그 非現實界에 잇소 또 無限者의 有限性은 이 現實界에 잇는 것이다.

그러면 現實的 對象 밖에 또한 非現實的 對이 잇을가? 萬一 非現實的 對象이 없을 적에는 이 때까지 한 말은 모두가 虛言空論에 더 지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現代에는 現實的 對象을 研究하는 學뿐만이 아니라 또한 非現實的 對象을 研究하는 學이 嚴然이 存在하고 있다. 아니 哲學史上에서 가장 오래된 學이 곧 非現實的 對象을 研究하는 學이다. 非現實的 對象을 研究하는 學이 그러타고 現實的 對象을 研究하는 學보담 客觀性和 價値가 없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보담 더 客觀的이요, 또 더 價値가 잇는 것이다. 非現實的 對象을 研究하는 學들 가운데 가장 明白한 것은 數學과 倫理學이다. 그러므로 數學的 對象과 倫理學的 對象을 살펴보자.

數學的 對象이 非現實的이라는 것은 哲學者 뿐이 아니라 數學者가 또한 이미 承認하는 것이 아닌가. 종이 위에 그리여 잇는 三角形, 黑板 위에 그리여

잇는 四角形 或은 自然界에 나타나는 角形들은 모두가 보고 드를 수 잇는 現實的 角形이지만 數學者가 自己의 研究의 對象을 삼는 그 모든 角形들은 전혀 感覺할 수 없는 非現實的인 것이다. 數學的 對象들의 全體인 그 「空間」 自體가 現實性이 아니라 오직 非現實性 곧 理想性(Ideautæet)을 가졌다는 것은 라입닛츠 以後로 自他가 다 一共認하는 바가 아닌가. 그러타고 그 非現實的인 數學的 對象이 그 現實的인 自然界의 對象들과 아무 關係없는 것이 아니다. 이 自然界에 생겨나며 나타나는 그 모든 物體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數學的 對象의 前提와 制約 밑에서 可能할 수 잇다는 것을 우리는 「自然의 冊 속에는 數學的 數字들과 글字들로서 쓰이엇다」는 갈닐네의 말을 빌리지 않고라도 잘 알 수가 잇다. 웨 그러냐하면 萬物의 盈枯盛衰와 萬象의 浮沈消長 이 모든 것이 오직 「空間」이란 그 自體의 前提 밑에서만 可能할 수 잇는 때문이다. 數學뿐만 아니라 倫理學이 또한 非現實的 對象을 研究한다. 義務와 道德과 自由 이것들은 倫理學의 固有한 對象으로서 地上 天上에 잇는 千形萬象과 가치 現實的인 것이 아니라 도리혀 非現實的 곧 理想的인 것이다. 義務와 道德과 自由 이것들은 이 現實界에 存在한 것이 아니라 永遠한 未來에 次次 存在케 될 것으로 잇다. 아직 現實的이 아니고 非現實的인 그 義務와 道德과 自由 이것들을 永遠한 時日을 두고 現實化 시키고져 함이 人生의 最高의 目的이요, 永遠한 課題다. 數學과 倫理學 뿐이 아니라 歷史學의 對象이 또한 非現實的이다. 웨 그러냐하면 歷史學의 對象이 되는 모든 事象은 다 가 임의 「지내간 것」으로서 過去에 存在했는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人生 生活에 切實이 要求하며 또 가장 價値잇다는 그 모든 것들 眞善, 眞美, 永遠性, 絶對性, 眞理 等等은 다가 事物과 가치 現實的인 것이 아니라 오직 非現實的인 것이다.

이 때까지 論述한 것을 볼 적에는 現實界보담 非現實界가 더 重하며 또 現實界의 認識보담 非現實界의 認識이 더 必要치 않은가 하는 疑問을 가질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非現實界와 또 非現實界의 認識을 더 重이 녀이며 더 必要케 녀임은 오리혀 이 現實界와 또 이 現實界의 認識을 더 重이 녀이며 또 더 必要케 녀이는 때문이다. 萬一 우에서 現實界 自體가 矛盾이며 分裂된 것이라고 하였은 즉 現實界의 깊은 참된 認識은 現實界와 矛盾되는 그 世界를 또한 認識해야 될 것이다. 萬一 現實界는 認識의 出發點인 同時에 또한 目的 點이라고 하였은 즉 이 現實界를 出發해서 다시 이 現實界를 도라오자면 거기엔 必然한 「길」이 잇을 것이다. 現實界로부터 非實界에 가는 그 「길」이 橫在한 領域이 그 달은 것이 아니라 곧 이때까지 말한 非現實界다. 그러므로 認識의 目的인 現實界의 認識은 이 非現實界의 領域을 지내지 않고 곧

認識치 않고는 到達할 수가 없다. 有限한 現實界의 認識의 完成은 오직 無限한 非現實界의 認識의 完成에 매이였다. 非現實界는 제 自體가 無限한지라 제 自體의 認識이 또한 無限할 것이며 또 그로 쫓아 有限한 現實界의 認識 自體가 그 역시 無限性を 띠고 있다. 그러므로 哲學的으로 본 現實界의 認識은 한 永遠한 課題며 이 永遠한 課題를 풀려고 責任진 者가 곳 그 理論哲學이다.